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강연석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in Hyangyakboncho of Hyangyakjipseongbang

Kang Yeonseok,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HyangyakBoncho(鄉藥本草) in Vol. 76-85 of the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deals with the Hyangyak, medicinal stuff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Chosun from the late times of Korea to the early times of Chosun. It also includes whole knowledges and the way to process(炮製) of oriental medical botany(本草) in that period of Chosun and China. It contains all the knowledges of the Hyangyak and the Boncho(鄉藥本草學) so that it can be helpful for the Chosun to apply to medicines. This study shows the characters of HyangyakBoncho(鄉藥本草) through analyzing. In future it is supposed that this report is the first approach to the core of the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which describes medicines with prescriptions made up of the Hyangyak mainly.

Key words : the HyangyakBoncho(鄉藥本草), 『the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Hyangyak(鄉藥 : native herbal drugs in Korea)

I. 序論

麗末鮮初의 시기에는 『鄉藥古方』, 『鄉藥惠民經驗方』, 『鄉藥救急方』, 『鄉藥濟生集成方』, 『鄉藥採取月令』 및 『鄉藥集成方』 등 鄉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의서가 많이 편찬되었다. 논자는 『향약집성

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혼동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鄉藥’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용어들에 대해 정의내릴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鄉藥’은 “각 시기에 따라 한민족의 국가 영토[高麗, 朝鮮 등] 안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藥材”, ‘鄉藥醫學’은 “향약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는 의학”,

『鄉藥醫書』는 “향약 및 향약의학을 기술하고 있는 의서”로 정의한다.

『鄉藥集成方』은 959개 病證, 10,706개 處方, 1,475조의 鍼灸法 및 本草, 炮劑法을 신고 있는 전 85권으로 이루어진 朝鮮前期 鄉藥醫書이다. 『醫方類聚』와 함께 세종대에 만들어진 官撰醫書이면서도 『의방유취』가 세종대에 1회만 발간된 반면, 『향약집성방』은 1433년 세종대에 初刊本이 나온 이래 1454년(단종2), 1456년(세조2), 1478년(성종9), 1479년(성종10), 1488년(성종19), 1633년(인조11) 및 1942년에 재발간되었다.¹⁾

특히 조선의학의 분수령이 된 『東醫寶鑑』 이후의 의서들에는 조선전기의 두 책이 모두 직접 인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1633년과 1942년에 『향약집성방』이 재발간된 것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다. 더군다나 1633년은 淸의 침입이 시작된 시점이고 1942년은 일제강점기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향약집성방』은 의학 자체의 효용성 이외에도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방유취』나 『동의보감』과 달리 『향약집성방』에는 향약의학을 집대성한 향약의서로서의 독특한 면모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작은 단서이다.

기존의 연구는 引用文獻, 編輯體制, 序跋文, 王朝實錄 記事 등에 대한 기초연구만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향약집성방』은 ‘鄉藥方을 집대성하여 醫藥 자립의 기초마련’²⁾, ‘백성들이 처방을 손쉽게 값싸게 이용하기 위한 의서’³⁾, ‘기존의 의학지식에 鄉藥材를 이용한 經驗方을 덧붙임’⁴⁾이라 하였으며,

『향약본초』에 대해서도 ‘기존의 본초학 지식에 鄉名을 덧붙이고 炮제법에 관한 실효적 방법을 기술함’⁵⁾이라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향약집성방』의 향약의학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에 논자는 『향약집성방』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 및 기존 의서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조선전기 향약의학의 독특한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첫 단추로 「향약본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향약본초」는 조선전기 조선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향약을 대상으로 하며, 당시의 조선과 중국의 본초 및 炮제 지식을 총망라하면서, 조선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향약본초학 저술임을 알게 되어 본 논문을 통해 보고한다.

II. 本 論

『향약본초』는 『향약집성방』 전85권 가운데 76-85권에 해당된다. 初刊本이 존재하지 않아 발간 당시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⁶⁾ 다만 16세기 인조대에 발간된 훈련도감 활자본으로 「향약본초」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概論과 各論으로 구분되며, 개론은 또 다시 총론 [指南總論]과 수치법각론 [諸品藥石炮製法度]으로 이루어졌다.

총론은 ‘指南總論’이란 이름이 붙어 있으며, 처방을 구성하는 방법 [論處方法], 약물을 섞어 조제하는 방법 [論合和法], 약을 복용하는 방법 [論服藥法]을 논하였으며, 약물분량 [用藥分兩例], 사용부위

1) 한국한의학연구원,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 2001, pp.15-16

2)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p.206

3) 金斗鍾,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震檀學會; 제26회 韓國古典研究 심포지엄 《鄉藥集成方》의 종합적 검토, 1998, pp.212-213

4) 金斗鍾, 『麗末鮮初 ‘鄉藥論’의 형성과 『鄉藥集成方』』, 震檀學會; 제26회 韓國古典研究 심포지엄 《鄉藥集成方》의 종합적 검토, 1998, p.2

5)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p.219

6)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韓國韓醫學研究院 論文集 제7권 제1호 (통권 제7호), 서울, 2001, p.15

[用藥身梢例], 제형 [用藥丸散例], 수치법에 따른 용례 [用藥酒洗曝乾例]를 차례로 실고 있다. 포제법 각론 [諸品藥石炮製法度]에서는 211종의 약물을 石部, 草部, 木部, 人部, 獸部, 禽部, 蟲魚部, 果部, 米穀部, 菜部の 분류에 따라 각각의 수치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각론은 石, 草, 木, 人, 獸, 禽, 蟲魚, 果, 米穀, 菜의 분류에 따라 上中下 三品을 구별하여 703종의 약물에 대한 鄉藥名과 性味, 效能, 主治, 產地, 採取時期 및 諸家說을 실고 있다.

표1. 鄉藥本草의 체재

鄉藥本草 概論 : 제76권

指南總論

論處方法, 論合和法, 論服藥法,

用藥分兩例, 用藥身梢例,

用藥丸散例, 用藥酒洗曝乾例

諸品藥石炮製法度 (211종)

石部(17종), 草部(90종), 木部(32종),

人部(3종), 獸部(14종), 禽部(3종), 蟲魚部(27종),

果部(8종), 米穀部(9종), 菜部(8종)

鄉藥本草 各論 (703종) : 제77-85권

石部上品 (16종), 石部中品 (42종), 石部下品 (53종)

草部上品之上 (29종), 草部上品之下 (23종),

草部中品之上 (27종), 草部中品之下 (33종),

草部下品之上 (21종), 草部下品之下 (45종)

木部上品 (28종), 木部中品 (34종), 木部下品 (16종)

人部 (19종)

獸部上品 (12종), 獸部中品 (54종), 獸部下品 (21종)

禽部上品 (19종), 禽部中品 (7종), 禽部下品 (19종)

蟲魚部上品(18종), 蟲魚部中品(27종), 蟲魚部下品(36종)

果部上品 (10종), 果部中品 (6종), 果部下品 (11종)

米穀部上品(6종), 米穀部中品(23종), 米穀部下品(7종)

菜部上品 (18종), 菜部中品 (10종), 菜部下品 (13종)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⁷⁾는 송나라에서 국력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 『神農本草經』 이후에 나온 여러 본초서적들과 새로 알게 된 약물학 지식들을 계속 모아 증보한 책으로, 출간 당시에는 현재의 國際標準藥典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증류본초』가 비록 약물의 가지수와 정보가 계속 늘어났다 하더라도 『본초경』을 비롯한 선대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기만 했지 문장을 새로 고치지 않은 것은 ‘述而不作’이라는 전통을 지킨 것이다. 그러므로 「향약본초」가 본초학 분야에서 四書나 다름 없는 지위를 가진 『증류본초』의 분류체계나 약물 기재순서를 따르고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당시의 시대분위기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을 제외하고 「향약본초」와 『증류본초』를 단순히 비교연구한다면 「향약본초」는 『증류본초』의 아류작, 또는 축약본이란 결과 외에는 나오기 어렵다. 「향약본초」에 대한 연구에서 보다 의미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증류본초』와 「향약본초」의 같고 다른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여말선초의 향약의학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약재가 향약에 속하고, 어떤 약재는 속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조선에서 행해진 본초학 지식의 정리는 어떠한 점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의 최신 의학정보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점들이다.

1. 당시 조선에서 生産되거나 栽培되는 藥材만을 기술한 鄉藥本草書

鄉藥本草學을 파악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향약에 속하는 약재와 속하지 않는 약재를 구별하는 작업이다. 『증류본초』의 목차를 토대로 「향약본초」

7) 이하 『證類本草』라 한다.

의 약물을 비교해본 결과 아래의 표2와 같은 약물들을 「향약본초」에 신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향약본초」와 『증류본초』의 약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제어를 통일시켜야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향약본초」에는 丹雄雞, 白雄雞肉, 烏雄雞肉, 烏雄雞心, 烏雄雞肪, 烏雄雞腸, 烏雄雞屎白, 黑雌雞, 黑雌雞翎羽, 黃雌雞, 黃雌雞筋骨, 雞子, 卵白, 卵中白皮의 14개 조문이 각각 독립된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류본초』에는 丹雄雞만 표제어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丹雄雞 아래에 세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표제어만 비교해서는 안된다.

「향약본초」에 실린 약물의 가지수는 703종으로 알려져 있는데⁸⁾, 『증류본초』의 약물분류에 따라 같은 품종을 하나로 묶어서 파악하면 모두 623종인 셈이다.

「향약본초」에 실린 623종의 약재는 조선전기예 鄉藥으로 분류된 것이며, 「증류본초」의 1,445종 약물 가운데 「향약본초」에 빠진 822종 약재의 대부분은 中國 또는 日本 등지에서 수입되는 약재이다. 물론 人部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도 당연히 있었으나 윤리적인 이유로 신지 않은 것이 확실한 人血, 人肉, 人胞, 人膽 등의 항목을 고려한다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한편 甘草, 麻黃, 良薑, 木香 등 외국산 약재를 국내에서 재배하려는 노력⁹⁾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표2에서 보듯 ‘약방의 감초’라는 말처럼 자주 사용되는 甘草, 『傷寒論』에 많이 쓰이는 桂, 麻黃, 附子, 猪苓, 淸熱藥인 黃連, 連翹, 活血祛瘀藥인 乳香, 沒藥, 五靈脂, 蘇方木 및 기타 丹砂, 朴消, 禹餘糧, 雄黃, 石硫黃, 雌黃, 辰砂, 陽起石, 密陀僧, 礬石, 砒霜, 木香, 巴戟天, 肉蓯蓉, 丹參, 貝母, 狗脊, 紫菀, 敗醬, 防己, 高良薑, 薑黃,

肉豆蔻, 胡黃連, 使君子, 白豆蔻, 烏頭, 天雄, 甘遂, 何首烏, 骨碎補, 山豆根, 辛夷, 丁香, 沈香, 蘇合香, 檳榔, 烏藥, 龍眼, 大腹, 巴豆, 益智子, 龍骨, 犀角, 眞珠, 枇杷葉 등은 「향약본초」에 없는 약물이므로 당시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토대로 검색해본 결과 『향약집성방』의 全篇은 거의 대부분 「향약본초」에 기재된 약물들만을 중심으로 처방을 운용하고 있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후에 계속된 논문을 통해 발표할 것이다.

이후 조선에서 간행된 『東醫寶鑑』, 『方藥合編』, 『濟衆新編』 등의 본초 부분에는 외국산 약재의 국내재배 노력에 따라 鄉藥의 범주가 이와는 조금씩 다르게 표시되기도 하며, 또 외국산 약재와 국내산 약재를 따로 표시하고 있다. 향후 위 책들의 본초 부분과 「향약본초」와의 상세한 비교연구, 『향약집성방』 전편에 걸친 처방과 『의방유취』, 『태평성혜방』의 처방에 대한 비교연구가 진행된다면 향약의학의 모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에서의 활용성과 백성의 편리성을 도모한 實用本草書

「향약본초」가 그 대상을 당시대의 조선 영토 내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본초인 향약만을 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본초서가 조선에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술방식을 취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점 때문에 「향약본초」가 중국에서 나온 본초서적들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갖고 있는 것이며, 본문에는 그러한 「향약본초」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단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8)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p.219

9)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pp.247-250

표2. 『증류본초』에는 있으나 『향약본초』에는 실지 않은 약재

石部上品	丹砂, 朴消, 禹餘糧 등
石部中品	雄黃, 石硫黃, 雌黃, 辰砂, 陽起石 등
石部下品	礬石, 砒霜 등
草部上品之上	甘草, 木香, 巴戟天 등
草部上品之下	黃連, 肉蓯蓉, 丹參 등
草部中品之上	麻黃, 貝母, 狗脊, 紫菀, 敗醬 등
草部中品之下	防己, 高良薑, 薑黃, 肉豆蔻, 白豆蔻 등
草部下品之上	附子, 烏頭, 天雄, 甘遂 등
草部下品之下	何首烏, 骨碎補, 連翹, 山豆根 등
木部上品	桂, 辛夷, 丁香, 沈香, 乳香, 蘇合香 등
木部中品	檳榔, 猪苓, 烏藥, 沒藥, 龍眼, 大腹 등
木部下品	巴豆, 蘇方木, 益智子 등
人部	
獸部上品	龍骨 외
獸部中品	犀角 외
獸部下品	
禽部上品	
禽部中品	
禽部下品	
蟲魚部上品	眞珠 외
蟲魚部中品	
蟲魚部下品	五靈脂 외
果部上品	
果部中品	枇杷葉 외
果部下品	
米穀部上品	
米穀部中品	
米穀部下品	
菜部上品	
菜部中品	
菜部下品	

또 한가지는 국가에서 통치수단으로 만들어 향촌 사회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문의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 측면 또한 「향약본초」의 큰 특징이다.

2.1. 조선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實用本草書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자생하는 약재 중 가장 유명한 약재였던 ‘人蔘’에 대한 「향약본초」와 『증류본초』의 조문을 비교해 보았다.

표3. 「향약본초」의 人蔘 조문

- 1) 人蔘,味甘,微寒,微溫,無毒.主補五臟,安精神,定魂魄,止驚悸,除邪氣,明目,開心,益智.療腸胃中冷,心腹鼓痛,胸脇逆滿,霍亂吐逆,調中,止消渴,通血脈,破堅積,令人不忘.久服輕身延年.一名人衙,一名鬼蓋.一名神草,一名人微,一名土精,一名血蔘.根如人形者有神.①生山谷.二月,四月,八月上旬採根,竹刀刮曝乾,無令見風.②茯苓爲之使,惡人溲疏,鹵鹹,反藜蘆.
- 2) 《圖經》曰 春生苗,多於深山中背陰,近根漆下濕潤處,初生小者三四寸許,一極五葉 四五年後生兩極五葉,未有花莖 至十年後生三極,年深者生四極,各五葉.中心生一莖,俗名百尺杵.三月,四月有花,細小如粟,葉如絲,紫白色.秋後結子,或七八枚,如大豆,生青熟紅,自落.《藥性論》云 馬藟爲之使.消胸中痰,主肺痿吐膿及癩疾,冷氣逆上,傷寒不下食,患人虛而多夢紛紜,加而用之.《肅炳》云 人蔘和細辛密封,可留經年不壞.《日華子》云 殺金石藥毒,調中治氣,消食開胃,食之無忌.《海藥》云 又有手脚,狀如人形,長尺餘,以杉木夾定,紅絲纏飾之.又有沙州蔘,短小不堪採,根用時去其薑頭,不去則吐人.
- 3) 《眞珠囊》云 氣薄味厚,可升可降,陰中陽也.其用有五 補諸虛不足,一也 益元氣,二也 瀉肺,三也 瘡瘍排膿止痛,四也 壯脾胃,五也.

표3에서 1)에 해당되는 부분은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 등을 옮긴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2)는 이후의 제가설을 인용한 부분이다. 진한 글자는 본문에서 墨字로 쓰여진 글이며, ②의 밑줄 친 부분은 『증류본초』에서는 주석처리되었으나 「향약본초」에는 구분없이 기재한 부분이다.

‘인삼’ 조문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①로 표시한 ‘生山谷’이란 문장이다. 모든 문장이 『증

류본초』와 동일하나 유일하게 다르게 인용한 부분이다. 해당 문장은 산지를 말하고 있는데 “... 生上黨山谷及遼東.”라고 된 것을 중국의 지명인 ‘上黨’과 ‘遼東’을 삭제하였다. 즉 ‘상당의 산골짜기와 요동에서 생산된다’는 문장을 ‘우리나라의 산골짜기에서 자란다’고 바꾸어 놓은 것이다. 특별히 조선의 지명을 거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 전역의 산골짜기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신농본초경』에는 「향약본초」와 마찬가지로 ‘生山谷’이라고만 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산지명은 『증류본초』를 지은 사람들이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특이한 사항은 2)에 해당되는 諸家說을 인용하면서 ‘新羅’, ‘百濟’, ‘渤海’, ‘高麗蔘’ 등地名과 관련된 언급은 모두 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증류본초』에서는 「향약본초」의 ‘인삼’에서 인용하고 있는 『圖經』, 『藥性論』, 『肅炳』, 『日華子』, 『海藥』, 『陶隱居』, 『唐本注』, 『今注』, 『衍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지명이 보인다. 이것 역시 이미 조선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약재를 대상으로 한 「향약본초」의 특성상 본문에 옮길 필요가 없는 문장이므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표4. 「향약본초」의 石鐘乳 조문

石鐘乳,味甘,溫,無毒.主欬逆上氣,明目益精,安五臟,通百節,利九竅,下乳汁.益氣,補虛損,療脚弱疼冷,下焦傷竭,強陰.久服延年益壽,好顏色,不老,令人有子.不鍊服之,令人淋.一名公乳,一名蘆石,一名夏石.生山谷,採無時.蛇床爲之使.惡牡丹,玄石.畏紫石英,囊草.(今出本朝平安,黃海,江原等道石窟中)

세번째 특이사항은 ‘石鐘乳’의 조문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인삼’ 조문과 마찬가지로 『증류본

초』를 그대로 옮기고 있으나 산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生山谷”이라 되어 『증류본초』의 ‘少室’과 ‘太山’이란 중국지명을 삭제하고 있다. 즉 ‘소실산과 태산의 골짜기에서 생산된다’는 구절을 ‘우리나라의 산골짜기에서 생산된다’로 바꾼 것이다. 이와 아울러 맨 뒷부분에 “今出本朝平安,黃海,江原等道石窟中”이라고 주석처리하여 특별히 조선의 어느 지방에서 생산되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조선의 지명을 주석처리한 것은 「향약본초」 전문을 통해 石鐘乳, 知母, 淫羊藿, 零陵香, 鬼臼, 草三稜根, 牡荊實, 棟實, 白花蛇 등 아홉군데에서만 보인다. 이미 『世宗實錄地理志』를 통해 전국팔도에서 생산·재배되는 약재를 상세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한듯이 보인다. 이에 대한 것은 김두종의 『韓國醫學史』에서 언급¹⁰⁾한 바 있다.

위의 ‘人蔘’, ‘石鐘乳’의 예에서처럼 지명과 산지에 대한 설명은 703종 약재의 공통된 기술방식으로 「향약본초」가 조선에서의 활용성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백성의 손쉬운 이용을 위해 편리성을 높인 實用本草書

「향약본초」 개론의 ‘指南總論’은 처방을 구성하는 방법[論處方法], 약물을 섞어 조제하는 방법[論合和法], 약을 복용하는 방법[論服藥法]을 논하였으며, 약물분량[用藥分兩例], 사용부위[用藥身梢例], 제형[用藥丸散例], 수치법에 따른 용례[用藥酒洗曝乾例]를 차례로 실고 있다. 이는 실제 향약을 채취해서 보관,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며, 일반 본초서적들의 총론 부분에 의례히 나오는 上中下品, 君臣佐使, 陰陽配合, 四氣五味 등 약물의 운용과 약리 등 의학이론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빠져있다.

10)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pp.208-214

또한 포제법각론[諸品藥石炮製法度]에서는 211종의 약물을 石部, 草部, 木部, 人部, 獸部, 禽部, 蟲魚部, 果部, 米穀部, 菜部의 분류에 따라 여러가지 수치방법을 종합하여 기술하고 있다.¹¹⁾ 이 역시 약재를 직접 채취하는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炮製法을 집대성한 측면이 크다.

『향약집성방』은 건국 초기에 국가의 기틀을 잡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官撰醫書로서 의사들을 위한 醫書라는 측면 외에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아우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3. 국내외 본초지식을 총망라한 最新本草書

「향약본초」 개론의 ‘指南總論’ 부분은 『太平惠民和劑局方』¹²⁾의 卷末에 붙어 있는 許洪이撰한 ‘用藥總論指南’에서 발췌한 것¹³⁾으로 밝혀졌고, 各論 부분은 『증류본초』의 내용에 鄉藥名을 덧붙인 것¹⁴⁾으로 알려졌다. 요약하자면 宋代醫學에 高麗 및 朝鮮의 경험을 덧붙인 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향약본초」의 본문을 상세히 검토해본 결과 宋代의 의학정보 뿐 아니라 元代 이후 편찬된 『탕액본초』, 『진주낭』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최소한 13세기 말까지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책을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5세기 초에 진행된 「향약본초」의 작업에는 宋元代에 진행된 『증류본초』의 개정정보 작업의 연장선에서 최신 의학정보를 새로 끌어모아 증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3.1. 국내외 본초지식을 총망라한 最新本草書

첫째로 「향약본초」 개론의 ‘指南總論’ 가운데 처방을 구성하는 방법[論處方法], 약물을 섞어 조제하는 방법[論合和法], 약을 복용하는 방법[論服藥法]은 이미 알려진대로¹⁵⁾ 『화제국방』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論合和法의 “《湯液煎造》云…”과 論服藥法의 “《湯液本草》云…”라고 된 부분과 이어 나오는 用藥分兩例, 用藥身梢例, 用藥丸散例는 전부 王好古의 『탕액본초』¹⁶⁾에서 인용하였으며, 用藥酒洗曝乾例는 『탕액본초』와 『증류본초』에 실린 「本草序例」에서 부분부분 인용하였다.

둘째로 「향약본초」 각론에는 마지막 부분에 張元素의 『眞珠囊』을 인용한 石膏, 人蔘, 生地黃, 朮, 柴胡, 獨活, 升麻, 澤瀉, 龍膽, 細辛, 芎藭, 防風, 五味子, 乾薑, 生薑, 當歸, 白芷, 黃芩, 藁本, 地榆, 半夏, 大黃, 桔梗, 茯神, 藜蘆, 杜沖, 吳茱萸, 梔子, 枳殼, 枳實, 厚朴, 阿膠, 白僵蠶, 桃核仁, 杏核仁, 薄荷 등 36가지 조문이 있다. 이 『진주낭』은 『증류본초』에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약본초」 편찬진이 직접 넣은 것으로 인정해도 좋을 것 같다.

張元素는 『眞珠囊』을 통해 약물의 氣味の 厚薄陰陽에 따른 升降浮沈, 臟腑補瀉, 歸經學說, 引經報使 등의 이론을 주장하여 본초지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후 장원소의 이론은 李杲와 王好古 등을 거치면서 易水學派를 이루었다.¹⁷⁾ 「향약본초」의 개론부분은 왕호고의 『탕액본초』를 통해서, 각론 부분은 장원소의 『진주낭』을 통해 역수학파의 이론을 접목하여 가장 혁신적인 본초학 지식

11) 본문의 3.2.에서 상술.

12) 이하 『화제국방』이라 한다.

13)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0, pp.50-51

14)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p.219

15)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0, pp.50-51

16) 1289년 발간. 원 출전은 李東垣의 『用藥心法』이지만 『용약심법』이란 표기없이, 『탕액본초』라고만 언급한 것으로 보아 『탕액본초』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17) 陳大舜 外 2人, 金南日 외 공역,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서울, 2001

을 「향약본초」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향약본초」 각론은 『증류본초』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13세기에 간행된 최신의 판본을 참고한 것이다. 『증류본초』는 宋元代에 여러차례 개정간행되으나 어떤 판본을 참고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는 원래 1116년 北宋 때 『經史證類備急本草』를 수정간행한 것인데, 元代인 1249년 長存惠가 重刊하면서 『本草衍義』를 각 약물의 뒷부분에 첨가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무척 미미한 편인데 金斗鍾의 『韓國醫學史』에서는 1108년에 나온 『經史證類大觀本草』를 다시 간행한 “宋代의 『經史證類大觀本草』에 依準되어 있다”¹⁸⁾고 하였으며, 三木榮의 『朝鮮醫書誌』에는 『證類本草』¹⁹⁾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논자는 「향약집성방」에서는 1249년에 나온 원대의 판본을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향약본초」의 전 부분에 걸쳐 이미 13세기의 새로운 지식들을 접목시키고 있는 점, 『本草衍義』의 인용조문이 광범위한 점, 『향약집성방』의 작업시기가 15세기라는 점으로 볼 때 13세기 중반의 판본을 놔두고 100년이나 앞선 12세기 초의 판본을 구해 봤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3.2. 炮製法을 집대성한 最新本草書

포제법각론[諸品藥石炮製法度]에서는 211종의 약물을 石部, 草部, 木部, 人部, 獸部, 禽部, 蟲魚部, 果部, 米穀部, 菜部의 분류에 따라 각각의 수치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211종이라는 약물의 포제법만을 모아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기술하고 있는 본초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더우기 한 약물

에 『雷公炮炙論』, 『證類本草』 등 여러 본초서의 포제내용을 모두 나열하여 모아두었기 때문에 「향약본초」는 15세기까지의 포제법을 집대성한 책이라 할만하다.

권체의 서문에 “鄕藥本草와 炮劑法을 첨가하였다”는 구절, 『成宗實錄』에 “전에 撰集한 《향약집성방》 · 《본초》에는 여러 약초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법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 발견하여 개발해서 쓰는 약재도 추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아울러 모두 찬집해서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게 하소서”²⁰⁾라는 구절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향약본초」의 편찬진이 포제법의 정리에 무척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에 향약을 정리하고, 채취, 수확하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향약본초」를 15세기까지의 포제학 분야를 집대성한 저작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III. 結 論

본 논문은 「향약집성방」 「향약본초」의 분석을 통해 조선 초기 향약본초학의 모습을 파악해 보았다. 이 연구는 향후 향약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는 鄕藥醫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약본초」에 대해 알게 된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향약본초」는 당시 조선에서 生産되거나 栽培되는 藥材만을 기술한 鄕藥本草書이다.

18)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p.219

19) 三木榮, 『朝鮮醫書誌』, 增補板,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26

20) 『成宗實錄』卷98, p.264., 1979: 在前撰集鄕藥本草, 諸藥採取乾正之法, 未盡載錄. 非唯未盡載錄, 隨後見出興用藥材, 亦不添錄. ……., 并詳悉撰集, 開廣布.

둘째 「향약본초」는 조선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實用本草書이다.

세째 「향약본초」는 민간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인 實用本草書이다.

네째 「향약본초」는 국내외 본초지식을 총망라한 最新本草書이다.

다섯째 「향약본초」는 炮劑法을 집대성한 最新本草書이다.

위와 같은 「향약본초」에 대한 연구를 통해 『鄉藥集成方』 76-85권의 「鄉藥本草」는 麗末鮮初 조선의 영토 안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약재인 鄉藥을 대상으로 하며, 당시 조선과 중국의 본초 및 포제학 지식을 총망라하여 조선에서 활용하기 편하도록 鄉

藥本草學을 집대성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향약의학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는 『향약집성방』보다 후대에 나온 우리나라 의서들의 본초부분과 비교연구를 통해 향약의 범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찰해보는 것과 『향약집성방』 전편에 걸친 처방들의 운용이 향약을 이용하여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색인어〉 『향약집성방』, 「향약본초」, 향약, 본초, 포제, 조선전기

참 고 문 헌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0

한국한의학연구원,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 2001, p.23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韓國韓醫學研究院 論文集 제7권 제1호(통권 제7호), 서울, 2001

김남일,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震檀學會; 제26회 韓國古典研究 심포지엄 《鄉藥集成方》의 종합적 검토, 1998

김호, 麗末鮮初 ‘鄉藥論’의 형성과 『鄉藥集成方』, 震檀

學會; 제26회 韓國古典研究 심포지엄 《鄉藥集成方》의 종합적 검토, 1998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三木榮, 『朝鮮醫書誌』, 增補板,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26

陳大舜 外 2人,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서울, 200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식회사, 서울, 1995.

『成宗實錄』